

7. '우리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글을 쓰고자 한다. 그림 B가 갖는 의미를 고려하여 A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생성한 것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B		내용
①	획일화	⇒		⇒	사회 구성원들이 저마다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한다.
②	과소비	⇒		⇒	자신의 경제력에 맞춰 아껴 쓰는 생활 습관을 기른다.
③	성차별	⇒		⇒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룬다.
④	부정 부패	⇒		⇒	비리의 온상이 되는 잘못된 관행이나 부정적 요소를 과감히 제거한다.
⑤	무관심	⇒		⇒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도 외면했던 이웃에게 마음을 연다.

8. <보기>의 개요에 대한 수정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주제문 : ㉠ 학교 급식 문제의 해법은?

I. 서론 : 학교 급식에 대한 문제 제기
- 급식 재료에 수입 농산물의 비중이 크다.

II. 본론

1. 수입 농산물 사용의 문제점
가. ㉡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
나. 미래 우리 국민의 입맛과 농업 구조에 미칠 영향

2. 문제 발생의 원인
가. ㉢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저렴한 수입 농산물 구매
나. 급식 재료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3. 문제 해결의 방안
가. 급식 재료에 우리 농산물 사용 확대
나. ㉣ 학생들에 대한 올바른 식습관 교육
다. 급식 운영에 대한 국가적 지원 확대 ㉤

III. 결론 : 수입 농산물 사용 자제 촉구

- ① ㉠ : 주제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학교 급식 재료에 우리 농산물 사용을 늘리자.'로 진술한다.
- ② ㉡ : 범주가 다르므로 '수입 농산물'로 교체한다.
- ③ ㉢ : 논지 전개상 어색하므로 '본론 1'의 하위 항목으로 옮긴다.
- ④ ㉣ : 논지와 무관한 내용의 항목이므로 삭제한다.
- ⑤ ㉤ : 글의 완결성을 고려하여 '본론 3'에 '급식 재료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라는 하위 항목을 추가한다.

9. '과학 기술 인재 육성'이라는 주제로 연재 기사를 쓰기 위해 수집한 글감을 글쓰기 계획에 따라 조직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수집한 글감>

- ㄱ. 이공계 대학원을 지원하는 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 ㄴ. 외환 위기 이후 기업의 과학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가 대폭 축소되었다.
- ㄷ. 고급 과학 기술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다.
- ㄹ. 과학 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할 프로그램이 미흡하다.
- ㅁ. 과학 기술력은 인적 자원 수준에 비례한다.
- ㅂ. 과학 기술자의 경제적·사회적 처우를 개선한다.
- ㅅ. 한국의 과학 기술 인력 공급 지수는 6.37로, 일본 7.31, 미국 7.16에 비해 낮다.
- ㅇ. 이공계 학생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한다.

↓

<글쓰기 계획>

<제1부> 우수 과학 기술 인력이 부족하다. : ㄱ, ㅅ ①

<제2부> 우수 과학 기술 인력, 왜 부족한가?
- 기업 차원 : ㄴ ②
- 국가 차원 : ㄷ, ㅁ ③

<제3부> 우수 과학 기술 인력, 왜 중요한가? : ㄷ ④

<제4부> 과학 기술 인재의 육성 방안은? : ㅂ, ㅇ ⑤

10. 작문 수업 시간에 제시한 과제이다. <보기>의 조건에 맞게 가장 잘 표현한 것은? [1점]

— < 보 기 > —

<과제> : 공익 광고문 작성

<조건>

- 1. '공동체 의식 함양'을 주제로 삼을 것
- 2. 역설의 표현 방식을 활용할 것

- ① 나눔이 있는 세상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 ② 등 돌리면 멀어지고
마주보면 가까워집니다.
- ③ 자연의 소리 없는 절규
이제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 ④ 사랑으로 더불어 사는 삶
우리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 ⑤ 모두가 자기 소리만 내면
아무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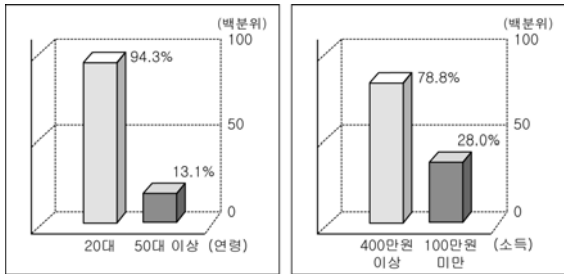
11. '정보 격차 문제'에 대해 글을 쓰고자 한다.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이끌어 낼 수 있는 논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가) 계층, 지역, 소득 등의 차이에 따른 정보 불균형 현상은 빈부 격차와 문화적 단절을 심화시켜 궁극적으로는 사회 통합을 저해하며, 인적 자원의 공급을 제한하고 사회 복지 비용을 증가시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 △△신문의 칼럼에서 -

(나) "정보 사회의 혜택은 정보를 얻기 위한 제반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있거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돌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재로서 공적인 영역에 존재하던 정보를 사유화하면 소외 계층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교수와의 인터뷰에서 -

(다) 인터넷 이용 현황



- ① (가)를 활용하여, 사회 통합과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정보 격차는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 ② (가), (다)를 활용하여, 세대간 정보 격차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문화 단절 현상이 초래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 ③ (나)를 활용하여, 정보 소외 계층이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④ (나), (다)를 활용하여, 정보 격차는 정보량의 폭증, 정보 수단의 사유화와 같은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 ⑤ (다)를 활용하여, 정보 격차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12. 수업 시간에 다음과 같은 학습지를 받고 과제를 수행했다고 할 때, 잘못 해결한 것은?

과제 학습지	제3학년 (3)반 (33)번 이름 : (○삼순)
※ 다음의 낱말을 이용하여 문장을 만들어 보자.	
• 괄시(愼視) : 사람의 걸모습이 초라하다고 해서 <u>괄시</u> 해서는 안 된다. ①	
• 불문(不問) : 아버지께서는 몸살에도 <u>불문</u> 하고 회사에 출근을 하셨다. ②	
• 반증(反證) : 그의 주장은 논리가 워낙 치밀해서 <u>반증</u> 하기가 매우 어렵다. ③	
• 애증(愛憎) : 그를 10년 만에 다시 만난 순간 그녀에게는 <u>애증</u> 의 감정이 교차했다. ④	
• 파란(波瀾) : 극심한 의견 대립으로 인해 이번 국회에서도 한바탕 <u>파란</u> 이 예상된다. ⑤	

13. <보기>의 글을 쓴 다음 고쳐쓰기를 위해 자기 평가를 해 보았다. 자기 진단 결과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보 기 >

우리들의 제안 : 휴지 대신 손수건을 쓰자

나는 부모님을 따라서 작년부터 손수건을 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다소 번거로웠지만 지금 와서 보니 전혀 불편하지 않다. ㉠ 않을뿐만 아니라, 그만큼 종이를 아껴서 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했다는 생각에 뿌듯한 기분을 갖게 된다. ㉡ 우리는 관습적으로 휴지를 마구 뽑아 쓴다. 그것도 한 장도 아닌 두 장, 석 장씩이나 뽑아 쓴다. ㉢ 손 닦으려고 한 장, 입 닦으려고 한 장, 칫솔 닦으려고 한 장 이런 식이다. 집안에 잠자고 있는 손수건이 적지 않을 것이다. ㉣ 우리는 단지 조금 귀찮다는 이유로 갖고 다니지 않았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 손수건을 한 장씩 주머니에 넣고 다니자.

평가 항목	자기 진단 결과
① 내용의 보완·삭제	글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 ㉡ 다음에 다른 일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 사례를 덧붙여야겠어.
② 문단의 구분	㉢ 이후에서 앞부분과 내용이 달라지니 여기서 문단을 나누어야겠지.
③ 문장의 성분	㉢에는 목적어가 없어 어색하므로 '손수건을'이라는 목적어를 넣는 게 좋겠어.
④ 어휘의 쓰임	㉣은 '습관적으로'로 고쳐야겠지.
⑤ 띄어쓰기	㉠은 띄어쓰기가 잘못되었으므로 '않을 뿐만'으로 고쳐야겠어.

14. 문법 수업 시간에 <보기>의 자료를 바탕으로 '단어의 형성'에 대해 탐구한 결과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 부분을 어근이라고 하며, 어근에 붙어 그 뜻을 제한하는 부분을 접사라고 한다.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를 단일어라 한다. 어근은 다른 어근이나 접사와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낸다. 어근이 어근과 결합하면 '합성어'라고 하고, 어근이 접사와 결합하면 '파생어'라고 한다. 합성어가 새로운 단어로 파생되기도 하고, 파생어가 다른 어근과 결합하여 합성어가 되기도 한다.

- ① '바다', '맑다'는 하나의 어근으로 되어 있으니 단일어이다.
- ② '밤낮'은 '밤'이라는 어근과 '낮'이라는 어근이 결합된 합성어이다.
- ③ '웃음'은 동사 어근 '웃-'에 접미사 '-음'이 붙어 명사가 된 파생어이다.
- ④ '결눈질'은 합성어 '결눈'에 접미사 '-질'이 결합된 파생어이다.
- ⑤ '회덮밥'은 파생어 '덮밥'에 새로운 어근 '회'가 결합된 합성어이다.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는 아침 나절에 그가 관계하던 신문사에서 문화부장에게 속히우던 일이 생각났다.

그가 해고당한 것을 알리기 전에 문화부장은 먼저 ‘오늘 치 만화 좀……’ 했던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해고당할 것을 예측하고 있던 그를 당황하게 했던 것이다. ‘오늘 치 만화……’라고 했으면 그는 자기가 해고당하지 않았음을 알았으리라. 또는 ‘오늘 부터는 그리실 필요는 없게 됐습니다’라고 하면 유감스럽긴 하지만 그것도 뜻은 분명하다. 그런데 ‘오늘 치 좀……’ 했던 것이다. 오늘 치의 만화를 보아서 재미가 있으면 계속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해고다, 라고밖에 들리지 않던 그 말투. ㉠ 그는 갑자기 껍 소리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런 충동을 눌러 가면서 그는 느릿느릿 걸었다. 거리의 모퉁이에서 공중전화가 눈에 띄었다. 집에 전화가 있다면 아내를 불러내었으면 좋겠다. 아내와 함께 밤늦도록 거리를 쏘다닌다면 좋겠다. 쇼윈도라도 보면서, 그레 쇼윈도라도 보면서.

그는 누구에게라도 좋으니 전화를 걸어서 이야기해 보고 싶었다. 얼른 생각난 사람이 엿저녁에 술을 사주던 선배 만화가 김 선생이었다. 김 선생은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신문사의 자리에 있었다.

“김 선생님, 결국 목잘랐습니다.”

저쪽에서는 잠시 침묵이었다.

“제기랄, 또 한잔 할까?”

“그럼시다. 나오세요. 아니 제가 선생님께 지금 가죠.”

“오게. 제기랄, ㉡ 한잔 하세.”

수화기를 놓고 나올 때 그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걸 느꼈다.

그는 김 선생이 따라 주는 술을 빨리빨리 마셨다.

“좀 천천히 마시게.”

김 선생은 걱정이 되는 모양이었다.

“괜찮아요.”

그는 손등으로 입가를 닦으며 싱긋 웃었다.

“우리나라 만화가들의 그 단순하면서도 회화적(繪畵的)인 선이 얼마나 훌륭한 걸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르고 있던 말야.”

김 선생은 술잔 속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기계로 그린 것 같은 양키들의 만화가 진짜인 줄로 알고 있거든.”

“만화가 우스우면 그만이지 쥐뿔나게 회화적이고 아니고를 찾게 됐어요?”

그는 또 술을 들이켰다. 김 선생은 그를 힐끗 쳐다보았다.

(가) “제가 군대 있을 때 말입니다.”

그는 말했다.

“남들은 제가 정훈으로 떨어졌다고 부러워했거든요. 편할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전 말예요, 총대를 쥐지 않으니까 말이 지요, 군인 기분이 안 났거든요.”

그는 취해 오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아마 그때 총대를 낀 사람들이 지금은 안정된 직장에들 앉아 있겠지요? 저는 항상 만화만 붙들고, 남들은 편하려니 부러워하지만 실상은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고 말입니다.”

“그렇까?”

김 선생이 말했다.

“술이 없으면 말야…….”

그들의 뒤쪽에 앉아 있는 패들의 하나가 소리쳤다.

“인생이란 말야…….”

“히, 또 나오시는군.”

“히, 저 소리 듣기 싫어서 이제 술 끊어야겠어.”

누군지가 소리쳤다.

“문화부장이 ㉢ 차나 한잔 하자고 하더군요.”

그는 속으로는, 자기가 만화 연재를 부탁하러 갔던 문화부장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었다.

“다방에 가서 그 양반이 그러더군요. 사람 웃기는 방법의 몇 가지 패턴을 안다고 곧 만화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 양반이 그랬어요. 두꺼비 같은 눈알을 부라리면서 말입니다.”

찾값을 앞질러 내버리던 그 키가 작달막한 문화부장. 날 무척 무안하게 해줬었지.

“그러면서 말입니다, 너는 미역국이다, 이거죠.”

자기네 사장이 얼른 뒤통수 달라는 기도를 하라던 그 사람. 난 참 면목이 없어서 혼났지.

“차나 한잔. 그것은 일종의 추파(秋波)다. 아시겠습니까, 김 선생님?”

그는 혀가 잘 돌아가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그 속에서 성실을 다했던 하나의 우연이 끝나고…….”

그는 술을 한 모금 꿀꺽 마셨다.

“새로운 우연이 다가온다는 징조다. 헤헤, 이건 낙관적이죠, 김 선생님?”

그는 김 선생이 방금 비워 낸 술잔에 취해서 떨리는 손으로 술을 따랐다.

“차나 한잔. 그것은 이 회색빛 도시의 따뜻한 비극이다. 아시겠습니까? 김 선생님, 해고시키면서 차라도 한잔 나누는 이 인정. 동양적인 특히 한국적인 미담…… 말입니다.”

“그, 어린이신문에 그리고 있는 거라도 열심히 하고 있게. 기다리면 또 뭐가 생길 테지.”

김 선생이 술잔을 들면서 말했다.

“자, 드세.”

그는 자기의 술잔을 잡으려고 했다. 잘못해서 술잔이 넘어져 버렸다. 그는 손가락끝에 얼질러진 술을 찍어서 술상 위에 ‘아툼×군’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다.

“자, ‘아툼×군’, 차나 한잔 하실까? 군과도 이별이다. 참 어디서 헤어지게 됐더라.”

그는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은 다른 손으로 자기의 이마를 한번 찰싹 때렸다. 골치가 쭈셨기 때문이다.

“오, 화성인들의 계약에 빠져서 군이 포로가 되어……. 바야흐로 생명이 위험해져 있는 데서 ‘다음 호에 계속’이었군…….”

(나) 미안하다, ‘아툼×군’……. 사람들은 항상 그런 걸 요구하거든. 아슬아슬한 데서 ‘다음 호에 계속.’

그는 다 그려진 ‘아툼×군’의 얼굴을 다시 손가락끝에 술을 찍어서 지우기 시작했다.

“미안하다. ‘아툼×군.’ 어떻게 군의 힘으로 적진을 뚫고 나오기 부탁한다. 이제 난……. 힘이 없단 말야. 나와 헤어지더라도……. 여보게, 우주의 광대하고.”

그러면서 그는 양쪽 팔을 넓게 벌렸다.

“어두운 공간 속에서 영원한 소년으로 살아 있게.”

그들은 밤늦도록 그런 식으로 술집에 앉아 있었다.

— 김승옥, 『차나 한잔』 —

15. <보기>에 근거할 때, 위 글에 나타난 도시적 삶의 양상을 통해 작가가 보여주려 했던 바를 바르게 추리한 것은?

〈 보 기 〉

김승옥의 작품들은 산업화, 도시화, 근대화가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한 거대 변화의 징후들을 섬세하고 날카롭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가 주로 꼼꼼하고 정감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은 1960년대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의 사람살이이다.

- ① 이촌 향도로 인한 도시 집중화를 배경으로 하여 욕망 실현의 공간으로서의 도시를 탐색한다.
- ② 계약적인 이익 사회에서 살아가는 도시인의 삶의 조건과 인간관계에 나타나는 특성을 조명한다.
- ③ 근대 도시의 공간과 시간을 감금과 구속의 이미지를 통해 살펴보고, 도시 탈출 의지와 열망을 모색한다.
- ④ 경제 성장과 도시 개발 과정에서 주변부로 밀려나는 도시 노동자, 빈민들의 열악한 생활 환경에 집중한다.
- ⑤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전통적인 삶의 붕괴와, 그로 인한 정신적 삶의 타락상이나 병리 현상에 주목한다.

16. '㉠ 한잔 하세'와 '㉡ 차나 한잔 하자'를 중심으로 위 글을 감상한다고 할 때, 적절한 의견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는 ㉠와는 달리 진정성이 결여된 우회적 어법이다.
- ② ㉠는 위안을 주고, ㉡는 모욕의 감정을 유발하고 있다.
- ③ '술'과 '차'는 각각 인간관계의 유형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 ④ ㉠와 ㉡가 공존하는 시대상을 통해 정체성의 위기를 드러낸다.
- ⑤ 내면을 드러내는 공간의 측면에서 '술집'과 '다방'이 대조되고 있다.

17.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그'가 신문사에서 해고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 ② 예술에 대한 '김 선생'과 '그'의 견해 차이가 드러나 있다.
- ③ '김 선생'의 위로에 대해 '그'는 자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④ 독자들의 그릇된 취향에 대한 '김 선생'의 한탄을 엿볼 수 있다.
- ⑤ '그'는 생존의 측면에서 정신 노동이 허울에 불과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18. (나)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논의한 내용이다. 적절한 의견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3점]

- ① '화성인들의 계약에 빠져 포로가 되어 생명이 위협해져 있는 아툼×군'은 생존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그'의 자화상으로 보여.
- ② '사람들이 항상 요구하'는 '다음 호에 계속'에서 보듯이 '그'는 독자의 알파한 흥미에 영합해야만 하는 이 시대 예술가들의 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 ③ '술을 찍어서 아툼×군을 지운다'는 것에서 타의에 의해 더 이상 만화를 연재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하는 '그'의 비애가 느껴져.
- ④ '그'는 아툼×군이 '적진을 뚫고 나오기'를 바라지만 그 소망이 실현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
- ⑤ '아툼×군이 어두운 공간 속에서 영원한 소년'으로 살아 있기를 바라는 데서 '그'는 초월적 세계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19. 위 글의 내용으로 보아 ㉠과 같은 반응을 유발하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 있는 것은?

- ① 이미 가버린 그날과 / 아직 오지 않은 그날에 머무른 / 이 아쉬운 자리에는 / 시시각각의 그의 충실만이 / 익어간다.
- 김춘수, 『능금』 -
- ② 겨울 문외에 가서 보았다. / 죽음이 삶을 껴안은 채 / 한 죽음을 받는 것을 / 끝까지 사절하다가 / 죽음은 인기척을 듣고 / 저만큼 가서 뒤를 돌아다본다.
- 고은, 『문의 마을에 가서』 -
- ③ 비가 온다, 비가 와도 / 강은 젖지 않는다. 오늘도 / 나를 젖게 해놓고, 내 안에서 / 그대 안으로 젖지 않고 옮겨가는 / 시간은 우리가 떠난 뒤에는 / 비 사이로 혼자 들판을 가리다.
- 오규원, 『비가 와도 젖는 자는』 -
- ④ 또다시 어리석은 시간이 온다, 김은 갑자기 눈을 뜬다, 갑자기 그가 울음을 터뜨린다, 갑자기 / 모든 것이 엉망이다, 예정된 모든 무너짐은 얼마나 질서정연한가 / 김은 얼굴이 이그러진다
- 기형도, 『오후 4시의 희망』 -
- ⑤ 인생은 외롭지도 않고 / 그저 잡지의 표지처럼 통속하거늘 / 한탄할 그 무엇이 무서워서 우리는 떠나는 것일까 / 목마는 하늘에 있고 / 방울 소리는 귓전에 철렁거리는데 / 가을 바람 소리는 / 내 쓰러진 술병 속에서 목메어 우는데
- 박인환, 『목마와 숙녀』 -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물을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빛과 그림자가 생생히 묘사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실적이고 입체적인 표현을 중시한 서양 회화는 빛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빛의 표현과 관련한 다양한 실험을 하였다. 사물을 입체적으로 그린다는 것은 결국 그 사물에서 반사되는 빛을 표현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빛이 물리적 실체로서 본격적으로 묘사되기 시작한 것은 르네상스기에 들어와서이다. 조토의 <옥좌의 마돈나>에서는 양감이 느껴진다. 양감이 느껴진다는 것은 빛을 의식했다는 증거이다. 이렇게 시작된 빛에 대한 인식은 조토보다 2세기 뒤의 작가인 미켈란젤로의 <도니 성가족>에서 더욱 명료하게 나타난다. 빛의 각도, 거리에 따른 밝기의 차이 등이 이 그림에는 상세히 묘사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입체감과 공간감도 실감나게 표현되어 있다.

17세기 바로크 시대에 들어서면 화가들의 빛에 대한 인식이 보다 심화된다. 빛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서양화가들은 빛이 사물의 형태를 식별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움직이는 심리적인 매체임을 깨달았다. 빛과 그림자의 변화에 따른 감정의 다양한 진폭을 느끼게 된 서양화가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표현하였다. 그 대표적인 화가가 ‘빛과 혼의 화가’로 불리는 렘브란트이다. 그는 빛이 지닌 심리적 효과를 탁월하게 묘사하였다. 그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하는 예레미야>라는 작품에서 멸망해 가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고뇌하는 예레미야에게 빛을 비춤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그림 속 주인공의 슬픔에 깊이 빠져들게 한다. 렘브란트가 사용한 빛은 그림 속 노인뿐만 아니라 그의 실존적 고통까지 선명히 비춘다. 이와 같은 렘브란트의 빛 처리는 그의 작품을 정신적 호소력을 지닌 예술이 되게 하였다.

19세기 인상파의 출현으로 인해 서양미술사는 빛과 관련하여 또 한 번 중요하고도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인상파 화가들은 광학 지식의 발달에 힘입어 사물의 색이 빛의 반사에 의해 생긴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빛의 밝기나 각도, 대기의 흐름에 따라 사물의 색이 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깨달음은 고정 불변하는 사물의 고유색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으로 이어졌다. 이제 화가가 그리는 것은 사물이 아니라 사물에서 반사된 빛이며, 빛의 운동이 되어 버렸다. 인상파 화가들은 빛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같은 주황색이라도 팔레트에서 빨강과 노랑을 섞어 주황색을 만들기보다는 빨강과 노랑을 각각 화포에 칠해 멀리서 볼 때 섞이게 함으로써 훨씬 채도가 높은 주황색을 만드는 것을 선호했다. 인상파 화가들은 이처럼 자연을 빛과 대기의 운동에 따른 색채 현상으로 보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빛의 표현에 모든 것을 바침으로써 매우 유동적이고 변화무쌍한 그림을 창조해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서양화가들은 빛에 대한 관찰과 실험을 통해 회화의 깊이와 폭을 확장시켰다. 그 과정에서 빛이 단순히 물리적 현상으로서만 아니라 심리적 현상으로도 체험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인상파 이후에도 빛에 대한 탐구와 표현은 다양한 측면에서 시도되고 있다. 따라서 빛을 중심으로 서양화를 감상하는 것도 그림이 주는 감동에 ㉠ 젖을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다.

20.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입체감이 느껴지게 하려면 빛과 그림자를 생생히 묘사해야 한다.
- ② 렘브란트는 빛이 지닌 심리적인 효과를 탁월하게 묘사한 화가이다.
- ③ 인상파 화가들은 사물이 지닌 고유색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④ 인상파 이후에도 빛에 대한 연구와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 ⑤ 르네상스기에 들어와 빛이 물리적 실체로서 본격적으로 묘사되기 시작하였다.

21.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빛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서양 회화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 ② 빛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소개한 후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 ③ 화가의 삶과 관련하여 개별 작품들에 대한 감상을 서술했다.
- ④ 빛에 대한 통념을 비판한 후 새로운 시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 ⑤ 사실적 표현을 위한 기법을 중심으로 서양 회화의 특징을 분석했다.

22. 위 글을 바탕으로 하여 아래의 그림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라 투르의 ‘두 개의 불꽃 앞의 막달라 마리아’>

- ① 그림의 중심 소재인 여인을 왼쪽에 배치하고 여인의 시선을 거울 속 촛불로 향하게 한 작가의 의도가 궁금해.
- ② 거울에 비친 촛불의 빛을 이용한 명암의 대비는 입체감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인물의 내면을 잘 드러내고 있어.
- ③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로 참회의 성인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와 관련해서 작품의 의미를 해석해야 해.
- ④ 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촛불을 소재로 택한 것으로 볼 때, 화가는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소망을 표현한 것 같아.
- ⑤ 그림 속 여인의 무릎에 놓인 해골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유한성과 그 원인이 된 죄를 상징하는 것 같아.

23. ㉠ 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1점]

- ① 안개 속에 잠긴 들이 비에 젖고 있었다.
- ② 귀에 젖은 아버지의 노랫가락이 들려 왔다.
- ③ 그는 노을빛에 젖은 하늘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 ④ 어젯밤 그는 묘한 슬픔에 젖어 잠을 이루지 못했다.
- ⑤ 지금 같은 시대에 봉건 사상에 젖어 있다니 말이 되는가?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스크류 없는 배가 바다를 달리는 것이 가능할까? 초전도 선박이라면 가능하다. 1992년 시험 운행을 통해 선을 보인 초전도 선박은 스크류로 인한 소음과 진동이 없으면서도 고속으로 운항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거기에는 ‘초전도 현상’이란 비밀이 담겨 있다.

초전도 현상은 어떤 특정 온도(임계온도) 이하에서 전기저항이 0이 되는 성질을 말한다. 이 현상은 네덜란드의 오네스(Heike Onnes)가 처음 발견했다. 그는 기체인 헬륨을 압축하여 절대온도 4도(섭씨 -269도)의 액체로 만드는 데 성공하였고, 이 액체 헬륨을 이용하여 물질의 온도를 절대온도 0도에 가깝게 냉각시킬 수 있었다. 그는 수은을 냉각시키면서 전기저항을 측정하던 중 절대온도 4.2도 근처에서 수은의 저항이 급격히 사라져 결국 0이 되는 것을 발견했던 것이다.

초전도 현상의 원인에 대한 설명은 반세기 가 지나서야 이루어졌는데, 공동 연구자들의 이름 첫 자를 딴 BCS이론이 그것이다. 금속이 저항을 갖는 것은 전자가 흐를 때 금속 이온에 부딪히기 때문인데, 이 이론에 따르면 초전도 상태에서 전자들은 들쭉 짝을 지은 ‘쿠퍼쌍’을 이룬다. 쿠퍼쌍은 금속 이온의 방해에 관계 없이 액체처럼 흐를 수가 있고, 그래서 전기저항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물질을 초전도체라 하는데, 초전도체는 완전한 전기 전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손실 없이 전기를 수송할 수 있으며, 이것으로 만든 코일을 사용하면 대단히 우수한 전자석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초전도체는 완전 반자성의 성질도 지니고 있다. 완전 반자성이란 주위에 자기장이 있을 때 물질의 표면에 표면 전류가 흘러 그 자기장을 없애 버리고 내부에 자기장이 전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성질을 말한다. 이러한 완전 반자성의 반발 작용을 이용하면, 자석 위에 초전도체를 두어 공중에 떠오르게 하거나 반대로 초전도체 위에 자석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초전도 현상이 워낙 낮은 온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초전도체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그 임계온도를 최대한 높일 필요가 있다. 과학자들은 다양한 초전도물질의 개발을 통해 임계온도를 꾸준히 높여 가고 있고, 초전도체는 이미 의학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응용되고 있다. 우리가 흔히 MRI라고 부르는 핵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에는 강력한 자석이 필요한데, 이 자석은 초전도 전선에 강력한 전류를 흘려 만든다. 미래의 에너지 제조원으로 꼽히는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도 초전도자석이 필요하며, 초전도자석의 자기부상 효과는 자기부상 열차의 핵심 원리로 사용된다. 앞에서 소개했던 초전도 선박의 힘의 근원도 초전도자석이다. 선체 밑에 초전도자석을 설치하여, 이것으로 해수에 자기장을 걸어 주고 전류를 흘리면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따른 전자력이 생기는데, 그 힘을 배가 운항하는 추진력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이제 절대온도 25도 이상에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고온 초전도체의 등장이 현실화되면서, 전 세계의 국가들은 조금이라도 더 높은 온도에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물질을 만들고 이를 응용하기 위한 무한 경쟁에 나서고 있다.

24. 위 글을 읽은 후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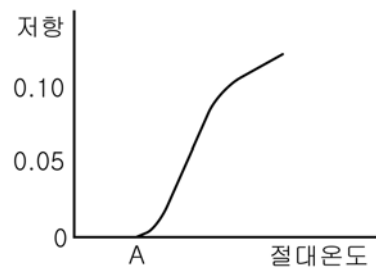
- ① 초전도체의 임계온도가 높을수록 실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쉬울 거야.

- ② 오네스가 초전도 현상을 발견한 것은 기체인 헬륨을 액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보아야겠군.
- ③ 전기 저항을 이용하여 열을 내는 전열 기구의 주요 재료로 초전도체를 사용하면 열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거야.
- ④ 금속에서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자들이 쌍을 이루어서 금속 이온과의 충돌을 피하도록 만드는 것이 관건이겠군.
- ⑤ 자기장의 반작용을 이용해서 레일 위를 떠서 달리는 자기 부상 열차의 원리는 초전도체의 완전 반자성이라는 특성과 관계 깊을 거야.

25. 위 글에 사용된 글쓰기 전략과 거리가 먼 것은? [1점]

- ① 물음을 던짐으로써 독자들의 관심을 유발한다.
- ② 용어의 의미를 설명하여 내용 전개에 바탕으로 삼는다.
- ③ 과제를 제시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며 논의를 시작한다.
- ④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에 관한 이론을 소개하여 이해를 돕는다.
- ⑤ 대상이 응용되는 사례들을 열거하여 실용적 가치를 부각한다.

26. 아래의 그래프는 어떤 물질의 온도와 전기저항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위 글의 내용을 참조할 때,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지점이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임계온도이다.
- ② 이 물질은 A 지점에서 완전 반자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 ③ A 지점에 이르기까지는 온도와 저항이 대체로 비례한다.
- ④ 이 물질의 전자들은 A 지점에 이르러 ‘쿠퍼쌍’을 이룰 것이다.
- ⑤ A 지점에서 모든 초전도물질의 저항과 온도는 동일할 것이다.

27. 위 글의 내용을 참조할 때, <보기>의 의문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보 기 >

초전도체로 된 전선으로 고리를 만든 다음, 외부에서 전류를 한 번만 흘려 주고 끊는다면 어떻게 될까?

- ① 전류를 흘려 주었을 때뿐만 아니라 끊은 이후에도 변함없이 전류가 흐를 것이다.
- ② 전류를 흘려 주었을 때뿐만 아니라 끊은 이후에도 전류가 전혀 흐르지 않을 것이다.
- ③ 전류를 처음 흘려 준 순간에만 전류가 흐르고 그 이후부터는 전혀 흐르지 않을 것이다.
- ④ 전류를 흘려 준 순간에는 강한 전류가 흐르다가, 끊고 난 후에는 매우 약해질 것이다.
- ⑤ 전류를 흘려 줄 때는 약한 전류가 흐르다가 끊고 난 후부터는 강한 전류가 흐를 것이다.

【28-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어느 들판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한 그루 늙은 나무를 만났다. 수도승일까. 목중하게 서 있었다.

다음 날은 조치원에서 공주로 가는 어느 가난한 마을 어귀에 그들은 떼를 저 몰려 있었다. 멍청하게 몰려 있는 그들은 어설픈 과객일까. 몹시 추워 보였다.

공주에서 온양으로 우회하는 뒷길 어느 산마루에 그들은 멀리서 있었다. 하늘문을 지키는 파수병일까, 외로워 보였다.

온양에서 서울로 돌아오자,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내안에 뿌리를 펴고 있었다. 목중한 그들의. 침울한 그들의. 아아 고독한 모습. 그 후로 나는 뽑아낼 수 없는 몇 그루의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

- 박목월, 『나무』 -

(나)

나무들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서서
하늘을 향해 길게 팔을 내뻗고 있다
밤이면 매마른 손끝에 아름다운 별빛을 받아
드러낸 몸통에서 흙 속에 박은 뿌리까지
그것으로 말끔히 씻어내려는 것이겠지
터진 살갗에 새겨진 ㉠ 고달픈 삶이나
뒤틀린 허리에 뻗 구질구질한 나날이야
부끄러울 것도 숨길 것도 없어
한밤에 내려 몸을 덮는 눈 따위
흔들어 시원스레 털어 다시 알몸이 되겠지만
알고 있을까 그들 때로 서로 부둥켜안고
온몸을 떨며 깊은 울음을 터뜨릴 때 ㉡
멀리서 같이 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 신경림, 『나목(裸木)』 -

(다)

㉢ 새벽 시내버스는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 업동 혹은 일수록
선연히 피는 성에꽃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 총각 아이 어른
㉤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의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워낸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나는 무슨 전람회엔 온 듯
자리를 옮겨다니며 보고
다시 꽃이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어느 누구의 ㉥ 막막한 한숨이던가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낸 정열의 숨결이던가
일없이 정성스레 ㉦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에꽃 한 잎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본다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 푸석한 얼굴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여.

- 최두석, 『성에꽃』 -

28.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적 대상의 이미지가 변화하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④ (가), (나), (다) 모두 시상의 반전을 통해 화자의 심리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 (나), (다) 모두 유사 어구의 점층적 반복을 통해 시적 의미를 심화시키고 있다.

29. (가)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후 논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관념적인 고민과 무기력 속에서 동경 유학 생활을 하던 대학생 '이인화'는 아내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귀향길에 오른다. 형사의 감시를 받으며 조선에 도착하기까지 그는 조선인들에 대한 일본인들의 멸시와 조롱을 보게 되고 현실에 눈을 뜨게 된다. 부산에 도착한 이인화는 서울까지 오는 기차 안에서 그리고 역 주변에서 궁핍한 삶에 허덕이는 조선인들의 비참한 삶, 아직도 허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 일본인들의 경제적 침략의 실상을 목도하게 된다. 그는 이러한 현실에 울분을 느끼며 분노하지만 동시에 조선인들의 인간적 품위를 잃은 비굴함과 허례 의식에 대해 혐오와 환멸을 느낀다. 결국 아내는 죽고 장례를 치르자마자 그는 서둘러 동경으로 돌아간다.

- ① (가)와 <보기>에는 공통적으로 출발한 곳으로 되돌아가는 회귀의 여정이 나타나 있어.
- ② 그리고 그 여정은 결과적으로 탐색의 과정이라는 점에서도 공통적이어.
- ③ 또한 (가)와 <보기>의 여정에는 모두 상황과 의지가 대립하는 양상이 나타나 있어.
- ④ 하지만 (가)는 화자의 내면 인식에, <보기>는 인물의 현실 인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 ⑤ 그 차이는 (가)에 설정된 화자와 <보기>에 설정된 인물의 성격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30. (나)의 내용의 흐름으로 보아 ㉡를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은?

- ① 하은 : 나목에 공감하는 존재로서 '멀리서 같이 우는 사람'을 제시하여 자연과 인간의 유대감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 ② 지선 : '멀리서 같이 우는 사람'은 '깊은 울음'을 우는 나목의 이미지와 중첩되는 표현으로 화자의 불행한 미래를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 ③ 강희 : 나목의 모습에서 이상 실현이 좌절된 자의 모습을 유추하고 이를 동정하는 존재로 '멀리서 같이 우는 사람'을 제시하여 좌절된 이상에 대한 화자의 미련을 표현하고 있어.
- ④ 경수 : '멀리서 같이 우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슬픔으로 울음을 터뜨리는 존재로, 나목에서 자신의 모습을 엿본 화자라 할 수 있어.

⑤ 재호 : ‘서로 부둥켜안고’ 우는 나목과 혼자서 ‘우는 사람’의 모습을 대비시켜 화자의 고독감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31. a~e 중, ㉠이 형상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점]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32. ㉡과 유사한 발상이 나타나 있는 것은? [1점]

- ① 벼는 서로 어우러져 / 기대고 산다. / 햇살 따라워질수록 / 깊이 익어 스스로를 아끼고 / 이웃들에게 저를 맡긴다.
- ② 혼자는 아니다 / 누구도 혼자는 아니다 / 나도 아니다. / 실상 하늘 아래 외톨이로 서 보는 날도 / 하늘만은 함께 있어 주지 않던가.
- ③ 함박눈은 내리는데 갈 길은 먼데 / 무관심을 사랑하는 노벨 부르며 / 눈사람을 기다리는 노벨 부르며 / 이 겨울 밤거리의 눈사람이 되었네
- ④ 푸르른 사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 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 아아, 마침내, 끝끝내 / 꽃 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 꽃 피는 나무이다
- ⑤ 오랜 방황 끝에 되돌아온 곳 / 우리의 옛사랑이 피 흘린 곳에 / 낯선 건물들 수상하게 들어섰고 / 플라타너스 가로수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 아직도 남아 있는 몇 개의 마른 잎 흔들며 / 우리의 고개를 떨구게 했다

【33-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청과물 상인들은 경험을 통해서, 제한된 공간 내에 가장 많은 과일을 조밀하게 채우는 방법은 육방밀집쌓기-가운데의 과일을 중심으로 테두리에 6개, 아래와 위로 각각 3개씩의 과일을 배열하는 방법-를 이용하는 것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수학자들은 다르다. 아무리 오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사실이라고 해도 엄밀한 과정을 통해서 증명되기 전까지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

수학자들의 이러한 태도를 가장 잘 보여 주는 사례가 ‘뉴턴과 그레고리의 논쟁’이다. 하나의 구(球)와 접할 수 있는 구의 최대의 수를 두고, 뉴턴은 12개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그레고리는 13개까지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육방밀집쌓기의 경우, 12개의 구가 가운데 구와 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와도 모두 접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하나의 구가 비집고 들어갈 공간은 전혀 없다. 상식적으로 볼 때 뉴턴의 생각이 당연히 옳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 12개의 구가 가운데 구와 맞닿아 있으면서도 육방밀집쌓기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배열이 있다. 가운데 구의 적도선의 바로 아래에 5개의 구를 배열한다. 그리고 그 5개의 구들과 엇갈리게 위쪽에 또 다른 5개의 구를 올려놓는다. 꼭대기와 맨 아래쪽에도 하나씩의 구를 놓는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배열에는 12개의 구 사이사이에 여유 공간이 꽤 많이 존재한다.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그 공간들 속으로 구 하나가 추가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 반지름이 1인 여러 개의 구들

이 같은 크기의 구를 둘러싸고 있다고 하자. 이 모두를 반지름 3인 커다란 구 안에 넣는다. 가운데 구의 중심에 등불이 있어서 주위에 있는 구들의 그림자가 커다란 구의 표면에 생긴다고 해보자. 계산을 해 보면, 그림자 각각의 면적은 7.6이고 외부의 커다란 구의 면적은 113.1이다. 113.1을 7.6으로 나누면 14.9가 된다. 이론적으로는 14개의 구까지도 들어갈 만큼 공간이 충분하다는 얘기이므로, 구들이 접할 때 생길 수밖에 없는 낭비되는 공간들을 고려하더라도, 그레고리의 주장이 옳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당사자인 뉴턴과 그레고리는 각자의 주장을 수학적으로 증명해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는 2세기 반 동안이나 증명을 기다리며 미제인 채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 문제의 수학적인 해결은 두 종류의 증명을 통해 비로소 이루어졌다. 쉬테와 바르텐은 공동 연구를 통해 반지름이 1인 13개의 구와 동시에 맞닿을 수 있는 구는 그 반지름이 1보다 클 수밖에 없음(최소 1.04557)을 보였다. 또한 존 리치는 ‘구면삼각법’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동일한 반경의 구 13개가 같은 반경의 구와 맞닿도록 그물을 짜는 것이 불가능함을 증명해 보였다. 그레고리의 13개의 구에 내려진 사형 선고였다. 결국 ㉠ 뉴턴이 옳았던 것으로 판명이 난 것이다.

이제야 수학자들은 3차원 공간에서 크기가 동일한 한 구에 접할 수 있는 구의 최대의 수는 12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고, 이후부터는 가운데 구와 맞닿을 수 있는 구의 최대의 개수를 ‘뉴턴 수’라고 부르고 있다.

33. 위 글을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1점]

— < 보 기 > —

<사례 제시 - 뉴턴과 그레고리의 논쟁>

- 논쟁의 핵심 소개
- 상식적인 판단
- 다른 가능성의 모색
- ()
- 논쟁이 미제인 채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 증명을 통한 사실의 확인 - 논쟁의 결론

- ① 가능성이 지닌 논리적 모순 지적
- ② 수학적 계산을 통한 가능성의 확인
- ③ 구체적 사례들을 통한 가능성의 부정
- ④ 가능성을 증명하는 다양한 방법 소개
- ⑤ 가능성의 결함을 암시하는 경험적 사실 제시

34. 위 글의 내용을 참조할 때, <보기>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3차원 공간에서의 뉴턴 수가 12라면, 직선 위와 평면 위에서 뉴턴 수는 어떻게 될까?

- ① 직선과 평면의 경우 모두 3이다.
- ② 직선에서는 1, 평면에서는 6이다.
- ③ 직선에서는 2, 평면에서는 6이다.
- ④ 직선에서는 2, 평면에서는 12이다.
- ⑤ 직선에서는 6, 평면에서는 12이다.

35. (가)의 내용을 발전시켜 ‘그레고리’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① 구들 사이에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구들을 움직여 여유 공간을 한 곳에 모으는 형태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 그 형태에서는 구 하나가 더 들어갈 여유 공간이 만들어질지도 몰라.
- ② 구들 사이에 여유 공간이 생긴다는 것은 육방밀집쌓기가 비효율적인 방법임을 뜻하는 거야. 그 공간들 위에 또 다른 구들을 쌓아 올리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밀집쌓기가 되겠지.
- ③ 구들 사이에 여유 공간이 있다는 것은 육방밀집쌓기와 달리 12개의 구가 모두 서로 맞닿을 필요는 없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12개의 구들 바깥쪽에 하나의 구를 추가할 수 있을 거야.
- ④ 구들이 모두 가운데의 구와 접하고 있어서 안 되는 거야. 주변의 구들 사이에 여유 공간이 있는 것처럼 가운데의 구와도 간격을 벌린다면 구 하나가 더 들어갈 공간이 생길 수 있을 거야.
- ⑤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구들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육방밀집쌓기가 가능하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12개의 구를 조밀하게 쌓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어.

36. (나)에서 ‘존 리치’가 소개된 ㉠을 증명한 방식과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모든 수에 0을 곱한 결과는 항상 0이야. 그러니까 99에 0을 곱한 값도 당연히 0이 되겠지.
- ② 3과 5와 7은 홀수인데, 2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야. 11도 홀수이니까, 2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일 거야.
- ③ 3인용 텐트의 값은 13만 원이고, 5인용 텐트는 15만 원이래. 이것은 7인용 텐트이니까 17만 원이겠지.
- ④ 3점 이상의 차이로 지면 우승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 그런데 지고도 우승했다는 걸 보니 점수 차이가 2점 이내였을 거야.
- ⑤ 삼각형은 변과 각의 수가 각각 3인 도형이야. 이등변삼각형도 삼각형의 한 종류이니 변과 각의 수가 3일 수밖에 없어.

37. <보기>의 의문에 대한 생각들 중, 수확자들과 가장 유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1점]

〈 보 기 〉

빨간 사과와 파란 사과가 각각 하나씩 있다. 둘 중 어느 것의 당도(糖度)가 더 높을까?

- ① 내가 지금까지 먹어 본 바로는 빨간 사과가 더 달았어. 그러니까 빨간 사과의 당도가 더 높을 거야.
- ② 나는 아직 두 사과의 맛을 본 적이 없어. 직접 먹어 본 후에야 어느 사과의 당도가 높은지 알 수 있을 거야.
- ③ 나는 두 사과의 당도를 재 보질 않았어. 당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전까지는 어느 것의 당도가 높은지 알 수 없어.
- ④ 나는 두 사과를 직접 먹어 보지는 않았어. 하지만 빨간 사과가 더 달다는 것은 상식이야. 그러니까 빨간 사과의 당도가 더 높을 거야.
- ⑤ 내가 직접 두 사과의 당도를 재 보지는 않았어.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빨간 색의 사과들이 당도가 더 높다고 해. 그러니까 빨간 사과의 당도가 더 높을 거야.

【38-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이두병이 황제라 자칭하고, 국법을 새로이 하여 각국 여러 고을에 공문을 보내고 벼슬도 높이는지라. 신하들이 모여 동궁(東宮)을 폐하여 외객관에 내치니, 시중(侍中) 빈환(嬪宦)이며 내외궁(內外宮) 노비 등이 하늘에 호소하고 땅에 고하며 망극 애통하니, 창천(蒼天)이 호통치고 백일(白日)이 빛을 잃더라.

이때에 왕 부인이 이러한 변을 보고 크게 놀라 왈,
“응당 죽으리로다.”
하며, 밤낮으로 하늘을 향하여 축원하여 왈,
“응의 나이 팔 세라. 죄 없는 것을 살려 주소서.”
하며 애걸하니, 그 정상(情狀)을 차마 보지 못할러라.
웅이 모친을 붙들고 만 가지로 위로 왈,
“모친은 불효자를 생각지 마옵시고 천금같이 귀한 몸을 안보(安保)하소서. 꿈 같은 세상에 유한한 간장을 상하게 말으소서. 한 번 살고 한 번 죽는 것은 제왕도 면치 못하옵거늘, 어찌 한 번 죽음을 면하리까? 짐작하옵건대 이두병은 우리 원수요 우리는 저의 원수 아니오니, 어찌 조웅이 이두병의 칼에 죽사오리까? 조금도 염려치 말으소서.”
하며, 분기를 참지 못하더라.

이때 이두병이 장자(長子) 관으로 동궁을 봉하고 국호를 고쳐 평순황제(平順皇帝)라 하고, 연호를 바꾸어 건무(建武) 원년이라 하다.

이때에 송 태자(太子)를 외객관에 두었더니, 신하들이 다시 간하여 태산 계량도에 귀양 보내어 소식을 끊게 하니라.
이 날 왕 부인 모자 태자의 귀양 감을 듣고 망극하여,
“우리 도망하여 태자를 따라 사생을 함께 하고 싶으나, 종적이 드러나면 지레 죽을 것이니 어찌 하리오?”
하며 모자 주야 통곡하더니, 하루는 웅이 황혼에 명월을 대하여 복수할 모책(謀策)을 생각하더니, 마음이 아득하고 분기탱천한 지라. 우울한 심사를 참지 못하여 부인 모르게 중문에 내달아 장안 큰길로 두루 걸어 한 곳에 다다르니, 아이들이 모여 시절 노래를 부르거늘 그 노래에 하였으되,

국과군망(國破君亡)에 무부지자(無父之子) 나시도다.
문제(文帝)가 순제(順帝) 되고 태평이 난세로다.
천지가 불변하니 산천을 고칠쏘냐.
삼강(三綱)이 불퇴(不退)하니 오륜(五倫)을 고칠쏘냐.
맑고 밝은 하늘에서 부슬비 내림은
충신 원루(怨淚) 아니시면 소인의 시샘이로다.
슬프다 창생(蒼生)들아, 오호(五湖)에 편주(扁舟) 타고
사해(四海)에 노닐다가 시절을 기다려라.

웅이 듣기를 다함에 분을 이기지 못하고 두루 걸어 경화문에 다다라 대궐을 바라보니, ㉡ 인적은 고요하고 달빛은 만정(滿庭)한데, 오리와 기러기는 연못에 떠다니고, 십 리나 되는 정원에 전조(前朝)의 경물(景物) 아님이 없는지라. 전조의 일을 생각하니 일편단심에 구비구비 쌓인 근심 갑자기 일어나는지라. 낮은 담장을 넘어 들어가 이두병을 대하여 사생을 결단코자 싶으되, 강약부동(強弱不同)이라. 문 안에 군사 많고 문이 굳게 닫혔는지라, 할 수 없어 그저 돌아서며 ㉢ 분을 참지 못하여 붓을 내어 경화문에 대서특필(大書特筆)하여, 이두병을 욕하는 글을 지어 쓰고 자취를 감추어 돌아오니라.

㉣ 이 날 왕 부인이 등불 아래 일몽(一夢)을 얻으니, 조 승상이 들어와 부인의 몸을 만지며 가로되,

“부인이 무슨 잠을 이리 깊이 자나이까? 날이 새면 큰 환란을 당할 것이니, 응을 데리고 급히 도망하소서.”
 하거늘, 부인이 망극하여 묻되,
 “이 깊은 밤에 어디로 가리이까?”
 승상 가로되,
 “수십 리를 가면 자연 구할 사람이 있을 것이니 급히 떠나소서.”
 하거늘, 놀라 깨달으니 남가일몽이라. ㉠ 응을 찾으니 또한 없는지라, 대경실색하여 문 밖에 내달아 두루 살펴보니 인적이 없는지라. 정신이 창황하여 이속하도록 중문을 바라보더니, 응이 급히 들어오거늘, 부인이 놀라 묻되,
 “이 깊은 밤에 어디를 갔더냐?”
 응이 이르되,
 “마음이 산란하여 달빛을 따라 거리를 배회하다가 돌아오나이다.”
 부인이 목이 메어 가로되,
 “아까 한 꿈을 얻으니 네 부친이 와 이리이리 하니, 가다가 죽을지라도 어찌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리오. 바삐 행장을 차리라.”
 한대, 응이 놀라 이르되,
 “소자 아까 나가 동요를 듣사오니 이리이리하옵거늘, 분두(忿頭)에 경화문에 다다라 이리이리 쓰고 왔나이다.”
 부인이 크게 놀라 꾸짖어 가로되,
 “어린 아이 이렇듯 일을 망령되이 하느냐? 그렇지 아니하여도 마음이 우물가에 어린 아이 섬 같거늘, 어찌 그리 경홀하냐? 새는 날 그 글을 보면 경각에 죽을 것이니 바삐 행장을 차려 도망하자.”
 하고, 약간의 의복과 행장을 모자 힘대로 가지고 바로 충렬묘에 들어가니, ㉡ 화상(畫像)의 얼굴이 붉고 땀이 나 화안(畫顏)을 적셨거늘, 모자 나아가 안하(案下)에 엎드려 크게 울지는 못하고 체읍(涕泣)하여 가슴을 두드리며 애통하니, 그 정상이 가련가공(可憐可矜)한지라.
 - 작자 미상, 『조웅전』 -

38. 위 글에 나타난 ‘응’의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다.
- ② 모친의 불안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 ③ 동지를 규합하여 장차 벌어질 싸움에 대비하고 있다.
- ④ 현재의 집권 세력에 대해 적대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⑤ 복수심에 불타지만 현재로서는 역부족임을 느끼고 있다.

39. ㉠~㉡를 제대로 이해한 반응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 : 사건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태도를 엿볼 수 있어.
- ② ㉠ : 정경을 동적인 이미지로 묘사하여 공간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어.
- ③ ㉡ : 꿈이 갖는 예언적 기능을 활용하여 이후의 사건 전개를 암시하고 있어.
- ④ ㉡ : 상황의 화급성과 시간의 흐름을 관련지어 인물의 내면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 ⑤ ㉡ : 초현실적 내용의 묘사에서 당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짐작할 수 있어.

40. <보기>에 나타난 이야기 구조를 위 글과 비교하여 이해할 때, 위 글에 나타나 있지 않은 이야기 요소는? [1점]

< 보 기 >

진성 여왕이 임금인 지 몇 해 만에, 유모 부호(兪好) 부인과 위홍(魏弘) 각간 등 서너 명의 신하가 정권을 잡고 권력을 휘두르니 도적들이 사방에서 일어났다. 나라 사람들이 걱정하여 이에 다라니(陀羅尼)의 은어를 지어 길거리에서 붙였다. 왕과 권신들이 이를 얻어 보고 이르기를, “왕거인(王居仁)이 아니면 누가 이러한 글을 지으리오.” 하고 거인을 감옥에 가두었다. 거인이 시를 지어 하늘에 호소하니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이로 인해 방면하였다. - 『삼국유사』 -

- ① 불의(不義)한 세력의 전횡
- ② 민심의 동향
- ③ 불의에 대한 고발
- ④ 의인(義人)에게 닥친 위기
- ⑤ 절대자에 의한 구원

41. ㉠에서 ‘응’이 쓴 글을 추측하여 지어 보려고 한다. <보기>의 조건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은?

< 보 기 >

○ 당면 현실에 대한 ‘응’의 태도와 결의가 드러나도록 한다.
 ○ 비유적 표현으로 의미가 우회적으로 드러나도록 한다.

- ① 열흘 붉은 꽃이 없음을 그대들은 알지 못하는가. 천하 백성들의 울음을 그대들은 듣지 못하는가. 강보에서 막 벗어난 나도 아는 이치(理致)이고 들을 수 있는 소리가거늘 하물며 그대들 같음에랴.
- ② 국가를 찬탈한 역도들은 들으라. 너희들의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도다. 전죄를 깊이 뉘우쳐 살기를 도모할진대 어진 황제께서 어찌 엄하게 처분하시겠는가. 다만 때를 잃지 않기를 바라노라.
- ③ 도적이 발호하여 도성이 깨어져도 산과 강만은 의구하구나. 봄이 와 초목이 우거졌는데 도적의 말발굽 소리만 요란하다. 시절을 헤아려보니 꽃을 봐도 눈물이 쏟아지고, 이별한 입 생각에 새소리에 도 놀라는구나.
- ④ 한 조각 먹구름이 천하를 어지럽히고 있도다. 중천의 해와 달을 가리우니 산천초목이 분노하도다. 잔바람에도 구름은 티끌같이 흩어지는 법. 하물며 만인 공분의 폭풍임에랴. 내 기꺼이 그 바람 되어 밝은 날을 보리라.
- ⑤ 앞을 바라보고 뒤를 돌아보니 나라의 혼란이 극에 달했음을 보도다. 그 누가 의(義) 아니면 가히 쓸 수 있겠으며, 그 누가 선(善)이 아닌데 가히 복종할 수 있으랴. 내 아직 어리고 미비하나 장차 기필코 정도(正道)를 보려함이라.

【42-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람이 사는 곳에는 고통이 존재한다. 칸트는, 고통이 쾌락의 전제가 되고, 쾌락과 쾌락 사이에 개입하여 건강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라고 보았다. 그런가 하면 라이프니츠는 고통을, 궁극적 선을 이루기 위한 신의 섭리가 실현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였다. 비록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신이 설정한 목표에 이른다는 것이다. 고통에 대한 이러한 논의들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목적론에 입각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고통을 인간의 실천 윤리와 관련지은 철학자가 바로 레비나스다. 그렇다면 고통은 어떻게 인간의 윤리적 측면에 관여하는 것일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소리를 지르거나 신음 소리를 낸다. 레비나스에 따르면 고통은 자신의 수용 범위를 넘어서는 그 어떤 것이다. 따라서 이 외침과 신음에는 근원적으로 타인의 도움에 대한 요청이 깔려 있다. 이 요청은 곧 타인과의 관계를 연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이 '열림'은 '절반의 열림'이다. 이것이 '완전한 열림'이 되기 위해서는 고통 받는 사람의 호소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육체를 지닌 인간의 자기 중심적인 본성에 비추어 볼 때, 타인의 고통에 대해 응답하는 모순적인 행동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레비나스는 인간을 자기 보존성을 지니는 존재인 동시에 타자(他者)를 지향하는 존재로 본다. 그는 ㉠ '욕구'와 ㉡ '열망'이라는 개념을 대비하여 이를 설명한다. '욕구'는 자신에게 결핍된 것을 얻으려는 인간의 지향을 나타낸다. 이것은 외부의 것을 자신에게 동화, 통합시킴으로써 자신을 유지하려는 생명체의 자기 보존 욕구와 관련된다. 이에 반해 '열망'은 자신의 빈 곳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다. 타자를 열망하는 태도는 타자를 자기 안으로 통합시키거나 자기화하는 작용이 아니라 타자를 향하여 자기 자신을 열고 헌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간은 타자와의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고통 받는 자의 호소를 냉정하게 외면하지 못하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타자에게 ㉢ 귀 기울이는 존재자를 레비나스는 이기적 자아와 구별하여 윤리적 자아라고 부른다. 내가 타자의 호소를 받아들일수록, 즉 나의 이기심을 버릴수록 나는 타자에 대하여 더욱 큰 책임을 느끼게 되고 그만큼 내 안의 윤리적 자아도 커져 간다. 타자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감수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타자를 대신하여 고통 받는 것이고 타자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다. 레비나스는 이를 '대속(代贖)'이라는 용어로 설명한다. 고통 받는 자의 호소에 반응하는 자아는 끊임없는 자기 결단의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윤리적 주체의 고유성을 확보한다.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하는 타자는 왕이나 독재자,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 고아, 노숙자, 즉 고통 받는 사람들이다. 이들에 대한 대속은 마음의 선물이 아니라 자신이 먹을 빵을 내주는 것이며, 자신의 지갑을 열어 주는 것일 뿐 아니라 자신의 집 문을 열어 주는 것이고, 타인의 고통을 방관하지 않고 자신이 대신 지는 것이다. 이럴 때 비로소 이 세계 안에는 연민과 동정과 자비가 있게 되며 이것이 이 세상을 아래에서 떠받치고 지탱한다.

42. <보기>는 한 교양 강좌의 강의 제목들이다. 위 글 전체 내용과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 < 보 기 > —

<현대인을 위한 교양 강좌>

- 제1강 : 윤리학의 뜻과 가치
- 제2강 : 윤리적 행위의 토대와 과정
- 제3강 : 윤리학이 걸어온 발자취
- 제4강 : 전통 윤리의 현대적 의미
- 제5강 : 현대 사회에서의 윤리의 위상

- ① 제1강 ② 제2강 ③ 제3강 ④ 제4강 ⑤ 제5강

43.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시를 감상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우리가 눈발이라면
 허공에서 쭈뼛쭈뼛 훑날리는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사람이 사는 마을
 가장 낮은 곳으로
 따뜻한 함박눈이 되어 내리자.
 우리가 눈발이라면
 잠 못 든 이의 창문 가에서는
 편지가 되고
 그이의 깊고 붉은 상처 위에 돋는
 새 살이 되자. - 안도현, 『우리가 눈발이라면』 -

- ① 화자는 '대속'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군.
- ② 화자는 인간의 '자기 보존성'을 지향하고 있군.
- ③ 우리가 응답해야 할 '타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
- ④ '절반의 열림'에 해당하는 모습도 형상화되어 있어.
- ⑤ 화자는 '윤리적 주체성'을 지녀야 한다고 말하고 있군.

44. ㉠과 ㉡에 해당하는 예를 가장 잘 짝 지은 것은? [1점]

- ① [㉠ 좋아하는 노래가 담긴 음반을 사고자 한다.
 ㉡ 노력해서 인기 많은 가수가 되고자 한다.
- ② [㉠ 더 나은 외모를 위해 성형 수술을 하고자 한다.
 ㉡ 새로운 세계를 체험하러 여행을 떠나고자 한다.
- ③ [㉠ 친구의 고민을 들어 주고 해결해 주려고 한다.
 ㉡ 수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성금을 내고자 한다.
- ④ [㉠ 가족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고자 한다.
 ㉡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친구를 사귀고자 한다.
- ⑤ [㉠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가 살 집을 마련하고자 한다.
 ㉡ 시간을 쪼개 사회 봉사 활동에 참가하고자 한다.

45. <보기>를 참조할 때, ㉢과 유사한 예로 볼 수 없는 것은?

— < 보 기 > —

㉢은 '귀'와 '기울이다'가 결합하여, 각 단어의 원래 의미와는 다른 새로운 의미, 즉 '남이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듣다.'의 뜻으로 사용되는 관용적 표현이다.

- ① 귀가 시리다 ② 귀가 밝다 ③ 귀에 거슬리다
 ④ 귀가 뚫리다 ⑤ 귀에 익다

46. 위 글의 내용으로 보아 ‘고통’에 대한 철학자들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라이프니츠 : 궁극적으로 볼 때, 고통은 인간에게 유익한 것이지요.
- ② 칸트 : 건강한 사람에게는 고통이 생길 여지가 없습니다.
- ③ 라이프니츠 : 고통은 더 나은 미래로 가는 통로인 셈이지요.
- ④ 칸트 : 고통이 없으면 즐거움도 느낄 수가 없을 것입니다.
- ⑤ 레비나스 : 타인의 고통에 관심을 가져야 해요.

【47 - 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형태소는 의미를 가지는 언어 단위 중 가장 작은 단위이다. 여기서 ‘가장 작다’라는 말은 더 이상 쪼개면 그 의미가 없어지는, 따라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크기라는 뜻이다. 그리고 ‘의미를 가지는 단위’라고 할 때의 ‘의미’에는 어떤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는가 하는 문법적 의미까지도 포함된다.

형태소에는 독립적으로 단어가 될 수 있는 자립 형태소가 있는 반면, 반드시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여야만 단어가 되는 의존 형태소도 있다. 즉, ‘흙’, ‘나무’ 등은 독립적으로 단어가 될 수 있는 형태소이지만, ‘읽어라’의 ‘읽-’은 ‘읽으니, 읽고, 읽게’처럼 반드시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여야만 문장에 쓰일 수도 있고 단어 행세도 할 수 있는 형태소이다.

그래서 단어는 대체로 자립 형식이어야 한다는 제약을 받는다. 자립 형식이란 다른 요소와의 결합 없이 문장에 나타날 수 있는 언어 형식을 가리킨다. 단어는 자립 형태소와 비슷하지만 ‘의미를 가지는 최소 단위’라는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립 형식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가 된다. 흔히 단어를 최소의 자립 형식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최소의 자립 형식이라는 조건만으로 단어를 다 규정짓기는 어렵다. 어떤 언어 형식이 단어인가 아닌가를 ㉠ 판별하는 일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학자에 따라서는 어절을 단어로 보기도 하며 더 분석된 단위를 단어로 취급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주시경 등의 초기 문법가들은 ‘철수가 책을 읽었다.’를 ‘철수, 가, 책, 을, 읽, 었다’의 여섯 개의 단어로 짜여진 것으로 보았지만, 최현배 등 한글 맞춤법 제정에 참여 하였던 학자들은 ‘철수, 가, 책, 을, 읽었다’의 다섯으로 보았다. ‘-었-’과 같은 의존 형태소가 ‘읽-’과 같이 자립성이 없는 말에 붙을 때에는 단어로 보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이승녕 등의 역사 문법가들은 ‘철수가, 책을, 읽었다’의 셋으로 나누었다.

역사 문법가들은 의존 형태소인 ‘가, 를’을 단어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주시경이나 최현배 등의 학자들은 단어로 인정한 것이다. ‘가, 를’이 ‘읽었다’에서의 ‘-었다’처럼 실질 형태소에 붙는다는 점에 근거한다면 단어의 자격이 없다고 하겠으나 결합 대상인 실질 형태소의 특성이 다르다는 점을 중시하여 단어로 처리한 것이다. 곧 ‘가, 를’이 붙는 말은 자립 형태소인데 반하여 ‘-었다’가 붙는 말은 의존 형태소이다. ‘읽-’은 ‘-었다’와 결합하여야만 자립성을 발휘할 수 있으나 ‘철수, 책’은 그 자체로도 자립성이 있다. 따라서 ‘가, 를’은 의존 형태소이지만 앞의 말과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리성은 ‘가, 를’ 앞에 다른 단어가 개입될 수 있다는 점에 의해서도 분명해진다. ‘철수가 책을 읽었다’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책’과 ‘을’ 사이에 다른 단어인 ‘만’이 들어갈 수 있다. 즉, ‘책’과 ‘을’은 분리성을 가진다. 하지만 ‘책상’과 같은 경우는 ‘책’과 ‘상’ 사이에 다른 단어가 들어갈 수 없다. 단어는 그 내부에 다른 단어가 들어갈 수 있는 분리성을 갖지 않는다. 그러므로 단어는 그 내부에서는 분리성이 없지만 다른 단어와의 경계에서는 분리성이 있는 언어 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47. 위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1점]

- ① 실질 형태소는 모두 자립성을 지닌다.
- ② 단어는 그 자체 내에서는 분리성이 없다.
- ③ 자립 형태소는 단독으로 단어가 될 수 있다.
- ④ 형태소는 의미를 지닌 최소의 언어 단위이다.
- ⑤ 자립 형식은 문장에 독립적으로 등장할 수 있다.

48. 위 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② 설명하는 용어의 개념을 밝히며 서술하고 있다.
- ③ 갖추어야 할 조건을 중심으로 대상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 ④ 설명 대상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인용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 ⑤ 현상이나 사실을 설명한 후 그 내용을 간단한 용어로 정의하고 있다.

49. <보기>는 (가)를 읽고 나서 보인 반응이다. 적절하지 않은 반응을 보인 사람은?

— < 보 기 > —

“한 사람이 노래하면서 가요.”라는 문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발표하였다.

민주 : 주시경 선생님이라면 이 문장에서 ‘노래하면서’의 ‘-면서’는 단어의 자격이 있다고 하겠군.

주현 : 최현배 선생님은 그렇지 않다고 볼 거야. ‘노래하면서’는 그냥 한 단어로 간주할 거야.

현진 : 이승녕 선생님은 명사 ‘사람’과 조사 ‘이’가 결합된 ‘사람이’를 한 단어로 보았겠군.

진수 : 하지만 최현배 선생님의 단어관에 따르면 ‘사람’과 ‘이’는 각각 단어로 보아야겠지.

수정 : 주시경 선생님은 이 문장을 모두 여섯 개의 단어로 구성된 것으로 보았을 거야.

- ① 민주 ② 주현 ③ 현진 ④ 진수 ⑤ 수정

50. 문맥상 ㉠과 바꿔 쓸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려내는 ② 뽑아내는 ③ 골라내는
- ④ 끌어내는 ⑤ 갈라내는

【51 - 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제가야산독서당(題伽倻山讀書堂) 최치원

칩칩 바위 사이를 미친 듯 달려 겹겹 봉우리 울리니,
지척에서 하는 말소리도 분간키 어려워라.
늘 시비(是非)하는 소리 귀에 들릴세라,
짐짓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둘러 버렸다네.
狂奔疊石吼重巒(광분첩석후중만)
人語難分咫尺間(인어난분지척간)
常恐是非聲到耳(상공시비성도이)
故教流水盡籠山(고교유수진룡산)

(나) 어부가(漁父歌) 이현보

이 등에 시름 업스니 漁父(어부)의生涯(생애)이로다.
一葉扁舟(일엽편주)를 萬頃波(만경파)에 띄워 두고
人世(인세)를 다 니젓거니 날 가는 주를 알라.

구버는 千尋綠水(천심녹수) 도라보니 萬疊靑山(만첩청산)
十丈紅塵(십장홍진)이 언제나 ㄹ렛는고
江湖(강호)에 月白(월백)흐거든 더욱 無心(무심)흐애라.

靑荷(청하)에 바늘 뵈고 綠柳(녹류)에 고기 빼여
蘆荻花叢(노적화층)에 비 미야 두고
㉠ 一般淸意味(일반청의미)를 어너 부니 아랏실고.

山頭(산두)에 閒雲(한운)이 起(기)호고 水中(수중)에 白鷗(백구)이 飛(비)이라.
無心(무심)코 多情(다정)호니 이 두 거시로다.
一生(일생)애 시르를 닛고 너를 조차 노로리라.

(다) 조용(嘲慵) 성현

병술년 여름, 어느 날 나는 곤히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간이었다. 정신이 산란한 것이 마치 병이 든 것도 같고 그렇지 않은 것도 같았다. 또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면서 가슴이 돌에 눌린 것처럼 속이 답답했다. 게으름의 귀신이 든 것이 틀림없었다. 무당을 불러 귀신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게 했다.

“네가 나의 가슴속에 숨어들었기 때문에 나는 큰 병이 났다. <중략> 게을러서 나무도 심지 않고, 게을러서 집을 수리할 생각도 못하며, 솔밭이 부러져도 게을러서 고치지 않고, 의복이 해져도 게을러서 깎지 않으며, 중들이 죄를 지어도 게을러서 묻지 않고,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도 게을러서 화를 내지 않아서, 마침내 날로 내 행동은 굼땀 가고, 마음은 바보가 되며, 나의 용모는 날로 여위어 가고 말수조차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 모든 나의 허물은 다 네가 내 속에 들어와 멋대로 한 결과이다. 어찌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가지 않고 나만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구는가? 너는 어서 나를 떠나서 저 극락정토로 가거라. 그러면 나에게는 너로 해서 받게 되는 피해가 없을 것이요, 너는 또 네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가게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더니 귀신이 이렇게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화를 입히겠습니까? 운명은 하늘에 있는 것이니 나의 허물로 여기지 마십시오. ㉠ 굳센 쇠는 부서지고 강한 나무는 부러지며, 깨끗한 것은 더러움을 타기 쉽고, 우뚝한 것은 꺾이기 쉽습니다. ㉡ 굳은 돌은 조용함으로 해서 이지러지지 않고, 높은 산은 고요함으로 해서 영원한 것입니다. ㉢ 움직이는 것은 쉽게 요절하고 고요한 것은 오래오래 장수합니다. 지금 당신은 저 산과 같이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 근면은 도리어 화근이 되는 것, ㉤ 당신과 같이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 도리어 복의 근원이 될 수도 있지요.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형세를 따라 우왕좌왕하여 그때마다 시비의 소리가 분분하지만, 지금 당신은 물러나 앉았으니 당신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시비하는 소리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또 세상 사람들은 물욕에 휘둘러서 이익을 얻기 위해 날뛰지만, 당신은 걱정이 없어 제 정신을 잘 보존하니, 당신에게 지금 어느 것이 흥한 일이 되고 어느 것이 길한 일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이제부터 ㉥ 유지(有知)를 버리고 무지(無知)를 이루며, 유위(有爲)를 버리고 무위(無爲)의 경지에 이르며, 유정(有情)을 버리고 무정(無情)을 지키며, 유생(有生)을 버리고 무생(無生)을 즐기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 도는 죽지 않고 하늘과 함께 아득하여 태초와 하나가 될 것입니다. 내가 이처럼 앞으로도 계속 당신 자신을 잘 지키도록 도울 것인데, 도리어 나를 나무라시니 사람이 자신의 처지를 알아야지요. 그래 가지고서야 어디 되겠습니까?”

이에 나는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그래서 앞으로 내 잘못을 고칠 터이니 그대와 함께 살기를 바란다고 했더니, 게으름은 그제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있기로 했다.

5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에는 자연물을 본받으려는 태도가 나타나 있다.
- ② (가)와 (다)의 화자는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한탄하고 있다.
- ③ (나)와 (다)의 화자는 가난하지만 안락한 삶을 추구하고 있다.
- ④ (가)~(다) 모두 내면적인 갈등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드러나 있다.
- ⑤ (가)~(다) 모두 세속적인 삶과 거리를 두려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52. (가)를 시조로 바꿔 쓰는 활동을 해 보았다. <보기>의 조건을 가장 잘 지켜 쓴 것은?

- < 보 기 > —
- (가)의 주제 의식이 달라지지 않도록 할 것.
 - 시조의 일반적인 시상 전개 방식, 즉 초장에서 시상을 일으키고 중장에서 이를 이어받은 다음 종장에서 마무리하는 방식에 맞추어 쓸 것.

- ① 칩칩산중 바위 사이로 말소리 들려오네.
시비를 분간하여 바르게 듣자더니,
물소리 산에 두르고 안 들린다 하노라.

- ② 인세를 잊을 만하니 이 아니 좋을쏘냐.
바위 사이 광분하는 물소리로 산을 둘러
지척의 말소리조차 분간키 어려워라.
- ③ 아무리 들으려 해도 귀에 닿지 않으리.
말소리 시비 소리 분간하고 싶은데,
바위틈 흐르는 물이 온 산을 뒤흔드네.
- ④ 바위 사이 광분하는 물소리 굉장하니,
지척의 말소리도 분간키 어려워라.
온 산에 시비성(是非聲)은 둘러 두고 듣고저.
- ⑤ 첩첩 바위 사이 광분하는 물소리에
지척의 말소리도 분간키 어려워라.
저 물로 산을 둘러서 시비성(是非聲)을 막으리.

- ③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기술이 정교해진다. 그러므로 촌마을 사람들은 읍내의 기술을 못 따르고 읍내 사람들은 큰 도시의 기교를 따르지 못하고, 큰 도시 사람들은 서울의 희한한 신식 기술에 못 미치는 것이다.
- 정약용, 『기예론(技藝論)』 -
- ④ 산에 깃들여 사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거기에 얽매이고 연연해 한다면 이 역시 시장바닥이나 마찬가지다. 서화(書畵)를 완상하는 것은 아취 있는 일이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탐욕의 마음을 낸다면 이 역시 장사치이다.
- 홍만중, 『처가이물(處家理物)』 -
- ⑤ 재목이 될 나무는 얼른 보아도 쉽게 알 수가 있어 고르기가 용이한 법인데, 이 나무의 경우는 내가 세 번이나 다른 쪽에서 살폈어도 쓸모없는 나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 용모를 그럴듯하게 꾸미면서 속마음을 숨기고 있는 사람의 경우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 장유, 『곡목설(曲木說)』 -

53. <보기>는 ㉠에 대한 설명이다. 이를 참고하여 (나)의 시어들을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구절은 송나라의 소강절(邵康節)이 “달이 하늘 한가운데에 이르고 바람이 수면을 스칠 때, 일반의 청의미를 아는 이 적음을 헤아려 알았노라.”라고 노래한 ‘청야음(淸夜吟)’이라는 시의 일부를 차용한 것이다. 이 시에서 ‘청의미(淸意味)’는 욕망이 모두 정화(淨化)되어 지극히 순수해진 인간의 본성이 자연과 화합하여 이루어낸 경지를 일컫는다.

- ① ‘시름’은 욕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人世(인세)’와 호응한다.
- ② ‘月白(월백)’은 욕망이 정화된 화자의 내면과 조응한다.
- ③ ‘靑荷(청하)에 바블 싹고 綠柳(녹류)에 고기 빼’는 삶은 ‘일반의 청의미’를 형상화한 것이다.
- ④ ‘어너 부니 아르실고’는 ‘일반의 청의미’를 아는 이가 적다는 뜻이다.
- ⑤ ‘無心(무심)코’라는 말에는 순수한 인간의 본성을 상실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담겨 있다.

55. (나)와 (다)의 화자가 <보기>의 시를 읽고 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산슈간 바회 아래 뿌집을 짓노라 흐니
그 물론 늙들은 웃는다 흐다마는
어리고 하암의 뜻디는 내 분인가 흐노라.

누고셔三公(삼공)도곤 낫다 흐더니 萬乘(만승)이 이러흐랴.
이제로 헤어든 巢父許由(소부허유) | 낙뎡더라.
아마도 林泉閑興(임천한흥)을 비길 곳이 업세라.
- 윤선도, 『만흥(漫興)』 -

- ① (다)의 화자 : 나는 사람들의 시비에도 화를 내지 않는데 이 사람도 그럴 것 같군요.
- ② (나)의 화자 : 이 사람도 나처럼 ‘십장홍진’에서 멀어지고 싶은 심정인 것 같군요.
- ③ (다)의 화자 : 소부와 허유가 약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람도 복의 근원을 깨달은 것은 아닐까요?
- ④ (나)의 화자 : 결국 이 사람이 추구하는 삶은 어부로서의 나의 삶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군요.
- ⑤ (다)의 화자 : ‘임천한흥’을 즐기는 것으로 보아 이 사람은 어떤 형세에서든 길한 일만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54. 발상의 측면을 고려할 때, ㉠과 가장 유사한 방식으로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1점]

- ① 뜻을 다 표현한 다음에 말을 마치는 것은 천하의 지언(至言)이다. 그러나 말을 마쳐도 뜻은 다함이 없어 은은한 여운을 남기는 것은 더욱 지언이라 할 것이다.
- 신흘, 『야언(野言)』 -
- ② 양재(良材)는 천수(天壽)를 기다리지 못하고 대개 도중에 벌목을 당하고 만다. 세상에 소용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는 아무도 베려고 하지 않아서 오히려 장수한다.
- 장자, 『인간세(人間世)편』 -

56. ㉠~㉢ 중, (다)의 ‘귀신’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이질적인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57-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사회학에서 소외란 개인이 자신의 통제를 넘어서는 억압적 사회 구조나 제도와 상호 작용할 때 경험하게 되는 무의미감과 무력감을 말한다. 소외는 사회 구성원의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인격적 존재로서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데, 이는 개인의 불행일 뿐 아니라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소외는 사회적 실천 활동을 통해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과제임이 분명하다.

(나) 이러한 사회적 실천 활동을 구체화한 개념이 ‘사회복지’이다. 사회복지란 소외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사회적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와 그 과정을 의미한다. 현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계층간·세대간의 갈등 심화, 노령화와 가족 해체, 정보 격차에 의한 불평등 등의 사회 문제가 다각적으로 생겨나고 있는데, 이들 문제는 때로 사회 해체를 우려할 정도로 심각한 양상을 띠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의 기저에는 경제 성장과 사회 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평등과 불균형이 있으며, 이런 점에서 사회 문제는 대부분 소외 문제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 사회복지 찬성론자들은 이러한 문제들의 근원에 자유 시장 경제의 불완전성이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병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구조 조정으로 인해 대량의 실업 사태가 생겨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 이 과정에서 생겨난 희생자들을 방지하게 되면 사회 통합은 물론 지속적 경제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가 공동의 노력으로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만들어야 하며, 여기서 국가의 주도적 역할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현대 사회에 들어와 소외 문제가 사회 전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국가와 사회가 주도하여 사회복지 제도를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은 충분한 설득력을 갖는다.

(라) 반면, 부정적 입장을 취하는 ㉢ 반대론자들은 사회복지의 확대가 근로 의욕의 상실과 도덕적 해이라는 복지병을 유발하여 오히려 사회 발전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국민 계층을 대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사회복지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사회복지가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의 자립과 자활 의지를 살려내지 못하고 일방적 시혜에 그친다면, 그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 전체의 활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복지병이 사회복지의 과잉 공급에 의한 것임을 간과하고 있다. 적어도 삶의 질 문제와 인격권의 차원에서 사회복지가 이루어낸 성과를 그 폐단이 가릴 수는 없는 것이다. 사회복지란 자유 시장 경제의 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생겨나는 각종 소외 - 차별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여전히 유효한 제도인 것이다.

(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소외 계층을 포함하는 모든 국민이 사회에 참여하고 공동체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회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는 공정한 분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분배 정의는 기본적인 생활 보장과 안정적인 경제 성장의 사회적 기초로 작동하게 되는데, 사회복지란 이러한 분배 정의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오늘날의 사회복지란 국민 모두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확립하고 참여와 책임의 공동체를 구현하는 데, 그 지향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7.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가) : 논의를 위한 전제로 소외의 개념과 성격을 밝히고 있다.
- ② (나) : 통시적 고찰을 통해 사회복지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 ③ (다) : 사례를 들어 찬성론자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
- ④ (라) : 반대론자의 주장을 반박하여 찬성론을 강화하고 있다.
- ⑤ (마) : 사회복지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밝히고 있다.

58. 위 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과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회복지가 관심을 갖는 문제는 무엇인가?
- ② 소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 ③ 우리가 바라는 바람직한 사회는 어떤 모습인가?
- ④ 사회복지 제도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수립해 나갈 것인가?
- ⑤ 사회복지의 확대를 찬성 또는 반대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59. 속담을 활용하여 ㉠의 의미를 적절하게 표현한 것은?

- ① 선무당이 사람 잡을 수도 있다는 말일 거야.
- ②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수도 있다는 말이야.
- ③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군.
- ④ 남의 잔치에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할 수는 없다는 말이야.
- ⑤ 염불에 전념해야지 잣밥에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60. 위 글의 내용으로 보아 ㉠과 ㉡가 <보기>를 접하고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보 기 >

스칸디나비아 3국은 경제적 풍요, 정치적 자유와 함께 공동체적 평등이 보장되어 있는 나라로 잘 알려져 있다. 자유, 평등, 결속을 국가적 지표로 내걸고 있는 이들 세 나라는, 이념적으로 빈부의 격차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국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진다. 또한 고소득자는 최고 55%의 세금을 내고, 저소득자는 세금을 면제받으며, 실업자는 실업 수당을 지급받는다. 그 결과 개인이 쓸 수 있는 돈은 결국 엇비슷해진다.

- ① ㉠ : 사회적 안전망이 이들 국가의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풍요를 떠받치는 기둥이라 할 수 있습니다.
- ② ㉡ : 고소득자의 부담으로 저소득자를 책임지는 사회 체제가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 ③ ㉠ : 모든 사람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과 사회적 연대 의식이 인상적입니다.
- ④ ㉡ :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의 성공 여부는 고소득층의 소비 자제를 어느 정도로 이끌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 ⑤ ㉠ : 이 정도의 사회적 안전망과 연대 의식이라면 새롭게 생겨나는 소외 문제에도 원만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확인 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